

「제6회 사하모래톱 문학상 전국 공모전」 수상작

○ 수상작 현황

구 분		성 명	작 품 명	
산문 (4)	대상	소설	배병채	낙동강과 아버지-아버지의 검
	최우수	소설	송양행	판수의 노래
	우수	동화	최덕천	을숙도생태공원 사하행복아파트 A동 5층
	가작	수필	박덕은	끝자리에서 자신을 만나보면
운문 (4)	대상	시	김은혜	감천, 그 골목
	최우수	시	최형만	을숙도가 온다
	우수	시	고훈실 (고마리)	쥐섬 술섬 고리섬의 시간
	가작	시	한승엽	고니와 새섬매자기

목 차

1. 산문 대상(낙동강과 아버지-아버지의 점)	3
2. 산문 최우수(판수의 노래)	15
3. 산문 우수(을숙도생태공원 사하행복아파트 A동 5층)	32
4. 산문 가작(끝자리에서 자신을 만나보면)	38
5. 운문 대상(감천, 그 골목)	41
6. 운문 최우수(을숙도가 온다)	42
7. 운문 우수(취섬 솔섬 고리섬의 시간)	43
8. 운문 가작(고니와 새섬매자기)	44

산문 대상 : 낙동강과 아버지-아버지의 검

배 병 채

동살 한 줄기가 창을 쏜다. 민물과 바다가 합쳐지는 낙동강의 끝자락은 아직 흐릿하다. 대장간의 문을 민다. 문은 덜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을음을 덮어 쓴 검이 깊은 잠에 들어있다. 죽은 듯 누워있는 검은 날 길이 3척 3촌, 스페길이 1척, 총길이 4척 3촌, 무게 1.6근에서 2근 사이의 장검이다.

연마 작업을 할 때면 나는 늘 긴장한다. 기대만큼 두려움이 큰 탓이다. 나는 의식을 치르듯 두 손으로 검신을 받들고 화로와 풀무를 향해 깊게 읊을 한다. 산란하던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으면 검신劍身에 물을 뿌린다. 검신을 타고 흘러 내린 물이 슯돌을 적시고 바닥으로 떨어진다. 긴장으로 어깨가 단단해진다.

두 팔에 힘을 신는다. 슯돌에 올라앉은 검이 천천히 미끄러진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슯돌 위 물빛은 점점 검어진다. 슯돌과 검 사이의 거친 마찰음이 점점 낮고 부드러운 소리로 바뀐다. 마침내 검은 유백색의 속살을 내보인다.

숨이 멈춰진다. 확인하고픈 마음과 외면하고픈 마음이 엉겨든다. 두 마음이 갈등하는 순간 몸체와 칼날 사이에 가느다란 균열이 언뜻 보였다. 슯돌위의 검을 들어 확인해보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버렸다.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닌데도 실망감을 숨길 수 없다. 화로에 검을 던져 넣고 미련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아침 햇살이 대장간으로 스며든다. 발아래 다대포구로 고깃배들이 들어오고 있다. 아버지의 그림공책을 편다. 아버지 생각이 난다. 아버지의 손은 쇠잡이의 손이었다. 물집이 굳은 자리에 물집이 또 생기고 굳기를 반복했다. 손마디는 굵어지고 손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단단해져서 웬만한 가시도 파고들지 못하던 손이었다. 아버지는 햇발 드는 마당에 앉아 손바닥의 굳은살을 칼로 베어내곤 했다. 무딘 그 손으로 남겨놓은 그림공책이 내겐 아버지의 검을 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이다.

전화가 온 것은 그때였다.

“최 응 선생님? 저는 00신문사 박정의 기잡니다. 부친 최성 선생님 일로 한번 찾아뵙까 해서요.”

나는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벨은 몇 번인가 더 울리다가 잠잠해졌다. 요즘 들어 부쩍 낮선 전화가 잦다. 당신이 최성의 아들이 맞느냐. 남아 있는 아버지의 도검이 있느냐. 아버지의 검을 재현할 수 있겠느냐. 온통 아버지께 관해 묻는 전화다. 내가 아버지의 검을 본 것은 아주 어릴 적 딱 한 번뿐이다. 꿈에 본 듯 스쳐지나간 그 검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 아버지께 관한 것이라면 어떤 물음에도 대답할 수 없다.

대장간의 처음 주인은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말을 듣지도 하지도 못했다. 할아버지는 같은 처지의 할머니를 만나 아버지를 얻었다. 다행히 아버지의 귀는 먹지 않았다. 그럼에도 말을 제대로 못 했다. 말을 못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탓이다. 귀동냥으로 겨우 말문은 터졌으나 발음이 시원찮았다. 특히 문장은 물론 단어조차 음성에 얹히는 높낮이가 제멋대로였다. 바르지 못한 말투 때문에 처지는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입학 후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채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 두고 말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대장간을 물려받았다. 아버지는 옛장수의 가위에서부터 크고 작은 농기구를 만들어 팔았다. 팽이, 호미, 낫 부엌칼 등을 만들어 파는 일이 아버지 수입의 전부였다. 그마저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대장간수입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렇게 근근이 살아내던 어느 날 아버지가 대장간에서 쓰러지셨다. 이후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대장간의 문을 닫아 걸었다. 그런 뒤 무작정 도시로 나왔다.

낮선 도시에서 내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일용직이었다. 그날그날을 겨우 견뎌내고 있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들어가게 된 곳이 ‘불이공작소’라는 철공소였다. 불이공작소는 승학산 서쪽 자락의 외딴곳에 있었다. 일하는 사람은 사장과 나, 단 둘이었다. 공작소에서는 방법용 쇠창살부터 철 대문까지 쇠로 된 물건이면 무엇이든 주문이 들어오면 만들어 냈다.

공작소에서 일한 지 두 달쯤 지났을까. 인근 사찰로부터 대형 종을 걸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사장은 돈도 되지 않는 일이라며 시답잖아 하며 나에게 그 일을 미루었다. 나는 아버지 어깨 너머로 보았던 기억을 더듬어 고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쇠를 수없이 두들겨 접고 펴고 다시 접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재래식 방식으로 만든 고리가 인장강도 시험을 통과했다. 내가 만든 종의 고리는 이후 꽤 오래도록 제 구실을 해냈다. 그 일을 계기로 불

이공작소는 팬찮은 공작소라는 소문이 났다. 그러자 사장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그때 처음 나는 쇠를 만지는 이 일에서 나 역시 쉽게 달아나지 못할 거라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사장이 한마디 말도 없이 불이공작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새로 만난 사장은 나에게 함께 일 할 것을 제안했지만 나는 단번에 거절했다.

얼마 후 나는 괴정시장 구석진 자리에 작은 대장간을 열었다. 나도 아버지의 대장간처럼 크고 작은 농기구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입소문을 듣고 손님이 다문다문 늘어나기 시작했다. 오일장을 따라다니던 장사치들의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다. 대장간 한 쪽에 밀쳐두었던 아버지의 낡은 궤짝에 눈이 갔다. 늘 지나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궤짝을 앞에 두고 처음 보는 물건처럼 외양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바닥 길이가 두 뺨, 높이가 한 뺨 반인 장식도 없는 정육면체의 윗단이었다. 궤짝의 문을 열었다. 나무는 두껍고 속은 제법 깊었지만 나무의 물기가 날아가 버린 궤짝은 가벼웠다. 궤짝에는 두 개의 종이함이 들어 있었다. 위쪽에는 아버지 냄새가 베인 담뱃대, 풍년초, 목도장, 참빗 등 잡다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아래쪽 종이함에서는 제법 묵직한 광목보자기가 나왔다. 보자기를 풀자 공책 한 권이 나왔다. 표지에는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날아든 불티 때문인지 공책의 여기저기에 구멍이 나 있었다. 거뭇거뭇한 손때의 흔적은 아버지의 공책이라는 표시다.

첫 장을 펼쳤다. 내용은 온통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그림을 이어가며 넘기다 보니 검을 만드는 기록이다. 글씨라고는 한 자도 없는 그림 공책은 글씨를 몰랐던 아버지가 유일하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방법이다. 그림공책은 크게 세 편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첫째 장에는 사철을 구하는 장소와 채취, 덩이로 만드는 방법이, 두 번째 장은 공책의 7할 정도의 분량으로 접쇠 단조가공과 담금질에 대한 것이었다. 마지막 장은 검신의 조각 및 검의 집을 만드는 방법이 그려져 있었다.

처음 보는 남자가 대장간에 나타나 어슬렁거렸다. 단조작업을 하던 망치질을 멈추고 남자를 쳐다보았다. 남자가 내게로 걸어왔다.

“아침에 전화 드렸던 박정의 기자입니다.”

나는 대답대신 망치를 높이 들었다. 박 기자는 자신의 핸드폰을 내 얼굴 앞에 디밀었다. 화면에는 명성가에서 ‘검 전시회’ 소식을 알리는 내용이다. 나는 박 기자와 핸드폰 화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 기자는 명성가 14대 장인이 만들었다는 부러진 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전시장 조명 때문인지 검에서 얼핏 무늬가 보이더라고 했다. 처음에는 자신도 잘못 본 것이겠지 생각했는데 정말 무늬가 보였다고 했다. 검의 무늬를 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검의 무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일반인들은 검신 자체를 볼 기회가 거의 없다.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 볼 수 있는 검은 모조품이거나 오래되어 녹이 슨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가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명성가에서 전시한 그 검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아버지의 그림공책을 보고 검을 만들기 시작한지 여러 해지만 나도 검의 무늬를 보게 된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말이다.

“전시된 검은 모두 가로 무늬에 칼날은 물결 모양이었거든요. 그런데 14대 장인이 만들었다는 검 한 자루에만 격자무늬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지만 몇 번이나 봐도 분명히 격자무늬가 있었습니다.”

박 기자는 격자무늬를 여러 번 강조했다.

“어제 명성가를 오랫동안 취재하는 선배기자를 찾아갔습니다. 검에 격자무늬가 있는 것인지 제가 본 무늬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선배는 대답대신 45년여 전에 명성가에 나타난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선배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을 명성가 사람들은 모두 피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검과 명성가의 검을 직접 부딪쳐 결판을 내자고 했던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검을 부딪치는 걸 피하자 그 사람은 검으로 동전 자르기를 하자 했다고 합니다. 명성가에서는 그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지만 그는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날 그는 동전 세 개를 포개어 잘라보였는데 검의 날은 멀쩡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최서이라고 했었는데 선배의 말로는 그는 당시 최고의 도검장 ‘최성’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최성은 검에 미친 병어리 도검장이라고 놀림을 받았는데 제가 보았던 부러진 검 옆에 있던 검은 최성 선생의 검이 분명합니다.”

박 기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걸 생각해 볼 일이다. 약품과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든 무늬를 본 사람이 대부분이다. 검의 겉모양이 엇비슷하게 보이므로 일반인이 보기에는 인위적인 것인지 접쇠방식으로 만들어진 자연무늬인지 구별하

기 어렵다. 자연적인 무늬는 오직 접쇠가공으로 쇠가 접어지는 모양에 따라 무늬가 나타난다. 무늬는 도검장의 무수한 망치질에 의해 만들어진다. 쇠 속에 숨은 무늬는 망치질의 결과다. 땀방울의 결과가 무늬로 나타나는 것이다. 요즘은 숯돌에 검을 가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도검장도 그라인더로 연마를 한다. 그래서 무늬는 더 깊이 검신 속으로 숨어든다.

올해로 15대째 300년을 맞는 명성가는 검의 명문가다. 검을 만드는 사람에게 이름만으로도 선망의 대상이다. 일반 도검장들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위치에 있다. 최근엔 프랑스 박물관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검을 만들어 보낸다는 소식이 들린다. 명성가는 14대와 15대를 거치면서 부와 명예를 거머쥔 거대한 권력이 되었다. 전통문화 전승의 대가로 국고보조금을 받고 외국국빈들이 방문할 때 선물용 도검 납품권도 가지고 있다.

명성가가 어렵고 힘든 작업을 버리고 현대화라는 이름의 편리를 좇게 된 것은 14대부터인 것 같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명성가의 거대한 권력 때문인지 사실을 파헤쳐보려는 사람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다. 어쩌면 명성가의 검은 13대에서 맥이 끊겼는지도 모른다. 13대와 14대는 검의 겉모양은 같지만 내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올해는 명성가 탄생 30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14대 장인이 만든 훼손된 검을 복구해 처음으로 전시한다는 것만으로도 언론매체가 떠들썩하다.

박 기자의 말이 이어졌다.

“제가 전문가에게 알아본 바에 따르면 부러진 검과 격자무늬의 검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검신檢身의 재료뿐 만 아니라 조직도 다르다고 합니다. 가로무늬와 격자무늬는 제작방법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 명성가는 무늬가 다른 검을 자신들의 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격자무늬 검이 최성 선생이 만든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박 기자의 말을 믿기 어렵다. 그가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박 기자가 나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을 증명할 사람은 최웅 선생님 밖에 없습니다.”

박 기자가 돌아가고 유독 ‘선생님밖에’ 라는 말이 목에 가시처럼 걸렸다.

전국에서 내 놓으라 하는 도검장 모임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다. 자신의 손으로 명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도검장들은 늘 자신이 만든 검을 시험해 보고 싶어 한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자신이 만든 검을 가지고 나와 비무比武를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단순비교에서 출발하여 차츰 부딪쳐 승부를 보는 쪽으로 발전했다. 최고가 되고 싶은 도검장들은 해마다 그들의 명검을 뽑았다. 그리고 당대 최고라는 명성가의 검과 경합하는 것을 영예로 생각했다. 도검장들에게는 자신의 도검실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무대였다. 명성가 또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비무 방식은 명확했다. 직접 부딪쳐 승부를 가리는 방식이다. 시비의 발단이 된 것은 명성 14대가부터 비파괴 검사 장비를 이용하면서부터 라고 한다. 명성가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해도 수공하는 도검장은 거의 없었다. 명성가에 쓴 소리를 하는 사람도 없었다. 도검장들은 여전히 이전방식으로 비무를 했고 그해 최고의 검을 뽑았다. 그해의 검과 명성가와의 경합은 차츰 형식적으로 변했다. 도검장들은 명성가의 검과 비무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명성가 14대에서 검의 맥이 끊어졌을 것이란 이야기가 도검장들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창가에 서서 가을 햇살이 비치는 모래톱을 내려다본다. 오늘따라 왼쪽으로 다대항이 잡힐 듯 가깝게 보인다. 화로에 쇠를 올리고 풀무질을 했다. 열굴에 비치는 화로 불빛이 가을 노을처럼 붉다. 달군 쇠를 꺼내 모루위에 놓고 몇 번 두드리다 멈췄다. 아침에 부러뜨린 검과 박 기자의 말이 생각났다. 망치를 내려놓고 대장간을 나왔다.

새벽 4시 대장간에 불을 지핀다.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이다. 명검을 만드는 일도 아버지의 검을 재현하는 일도 나에게서는 머뭇기만 하다. 명검의 제일 요건은 강도에 있다. 강한 검은 망치질과 담금질이 좌우한다. 어떤 검도 불과 물을 거치지 않고는 강해질 수 없다. 단조로 골격을 세우고 담금질로 최상의 강도를 얻는다. 지난 40여 년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망치질과 담금질을 했다. 담금질에 실패한 검을 화로 속에 던질 때면 가슴이 아프다.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 불기운을 이기지 못한 검의 균열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망치질을 한다.

공책의 두 번째 편을 폈다. 여러 번 접어서 공책에 붙여둔 한지의 접힌 부분

이 너털너털해졌다. 아버지는 장소나 방법의 이야기도 그림으로 그려두었다. 검의 제작과정도 모두 설명대신 실측 그림으로 남겼다. 특히 장검의 모양이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은 종이에 검을 직접 대고 실측으로 그려두었다. 연필로 그린 기다란 검의 실측, 검의 스페에서 날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은 이제 눈을 감고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의 검은 보통의 검보다 딱 세 치가 길다. 겨우 세 치지만 한 치를 늘이는데도 수없이 많은 조율이 필요했다. 세치는 단순히 길이만의 의미가 아니다. 검을 잡았을 때 균형과 검사의 교감이다. 검의 길이에 따라 검의 스페에서 끝으로 흐르는 곡선의 두께가 완전히 다르다. 세치가 단순히 길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도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먼 바다에서 다대객사 위로 붉은 아침 해가 솟아오른다. 검의 무게중심을 잡는 일은 잠시도 게을리 할 수는 일이다. 단조 작업을 마친 쇠를 꺼냈다. 붉게 단 쇠를 모루위에 올려 망치질을 한다. 앞뒤의 무게 중심을 생각하고 스페를 중심으로 놓고 잡았다. 스페에서 칼끝까지의 길이를 생각하고 검의 두께를 잡아나 가다 멈췄다. 무게중심이 검 끝에 쏠렸다. 계량할 수 없지만 느낌으로 온다. 검의 중심을 잡는 일은 외줄을 타는 것 같은 집중이 필요하다. 스페에서 날 끝으로 이상적인 두께를 줄여나가며 무게중심을 잡는 일은 연습과 경험만으로 가능한 일이다.

처음 아버지의 공책을 보았을 때 나는 금방이라도 명검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다. 아버지는 스페에서 날 끝으로 가면서 검의 두께가 좁아지는 모양을 세로로 세워서 실물그대로 그려놓았다. 때문에 검의 모양과 형태 각도 등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었다. 문제는 모양은 그릴 수 있었지만 성질과 무게 중심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었다. 모양을 흉내 낼 수는 있었지만 온전한 곡선을 따라 하기는 무척 어려웠다. 계량하기 어려운 크기, 두께, 무게 따위의 선이 좁아지고 얇아지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달랐다. 아버지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그려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검에 대한 아버지의 접근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는 많이 달랐다. 칼날의 넓이와 칼등의 두께 차이를 이해하고 따라 하는데 2년을 보냈다. 무게중심을 잡는 데에도 1년 넘게 매달려야 했다.

나는 명성가의 검 전시장을 찾아갔다. 박 기자의 말이 다 뜬금없다고 생각하

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전시장 안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검에 관심을 가졌던가 싶을 만큼 많은 인파를 헤치고 전시장에 들어갔다. 부러진 검과 나란히 전시된 꺾충한 검 한 자루가 보였다. 박 기자가 말한 검은 아버지의 그림공책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모양과 길이다. 칼등의 끝은 날렵한 창 모양의 곡선은 전시된 검 어느 것보다도 달랐다. 아버지의 공책에서 보았던 모양이다. 칼등의 끝에 선명한 창 모양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다.

명성가 전시장을 몇 번이나 돌아본 뒤 대장간으로 돌아오니 저녁 무렵이었다. 대장간에 앉았다. 머릿속은 혼란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저녁을 먹다가 명성가 탐방프로를 보았다. 15대 장인의 손엔 14대 장인의 부러진 검을 들려 있었다. 15대 장인은 무슨 이유로 검이 부러졌는지는 모르지만 검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 행운이라는 말을 했다. 부러진 검 옆으로 낮에 보았던 낮익은 검이 얼핏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저러왔다.

대장간 앞을 수없이 서성거리다 새벽녘에 잠이 들었다. 잠시 눈을 붙였지만 정신은 맑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지게에 바소쿠리를 올렸다. 막걸리 두 병도 챙겼다. 사철을 얻는데 사철은 죽히 걸릴 것이다. 물속 냉기를 이기는 데는 막걸리만한 게 없다. 시렁에서 자석덩이를 꺼내 대나무 장대 끝에 달았다. 초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빛난다. 낙동강 모래톱까지는 산을 돌아 시오리다.

두 시간을 걸었다. 하구쪽 모래톱 중간쯤에 지게를 눕혀놓고 지게작대기를 물속에 넣어보았다. 물은 생각보다 깊어 작대기가 걸돌았다. 지게 위에서 장대를 내려 놓고 휘저었다. 흙탕물이 일면서 거뭇한 사철이 제법 붙어 올라온다. 지게를 독 옆에 눕혀 놓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무릎이 아릴 정도로 물이 차갑다.

점심때가 되어서 물속에서 나왔다. 지게에서 막걸리를 내려 한 잔을 들이켰다. 몸에 따듯한 온기가 돈다. 이제 물속의 한기도 문제없을 것 같다. 빈속에 막걸리를 연거푸 두 사발을 더 마셨다. 가을이 깊어지면 막걸리의 힘으로도 물속에서 버티기 힘들 것이다. 문득 아버지와 사철을 모으던 그때가 생각난다.

사흘간 모은 사철을 자루에 담아 감나무에 매달았다. 이틀을 두었더니 수분이 거의 빠져 나갔다. 내일이나 모래썸에는 대장간 바깥에서 녹이는 작업이 가능할 것 같다.

감나무에 달아놓은 사철을 내렸다. 덕석 위에 사철을 널고 있을 때였다. 등 뒤쪽에서 박 기자의 힘찬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대장간 터를 보기로 한 날인 모양이다. 대장간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막무가내다. 아침 일찍 나타난 것을 보니 신문사에 출근도 안 하고 바로 온 모양이다.

무지개마을이 내가 태어난 곳이다. 도심 속의 오지, 마을 뒷산에 서면 모래섬이 잡힐 듯이 보인다. 내가 열한 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양지바른 산비탈에 열기설기 움막을 지었다. 물운대가 잡힐 듯 보이는 움막에 화로를 놓고 아버지는 날마다 풀무질을 했다.

대장간 터는 고갯마루에서 아랫마을 우측 100여 미터쯤의 능선에 있다. 길이 험해 바로 갈 수 없다. 아랫마을로 내려갔다가 우측 능선을 탔다. 중간쯤에서 그을음 묻은 흙이 보였다. 나는 박 기자에게 손가락으로 대장간 터를 가리켰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 저 발똥이다. 얼마 만에 온 것인지 모르겠다. 고개 마루에 올라서도 대장간 쪽은 늘 외면했었다. 박 기자가 등산지팡이로 잡목 사이의 흙을 헤집으며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으려 애를 쓴다. 박 기자가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니는 동안 나는 멀리 하굿둑과 물운대 바다와 하늘을 무연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사철 녹일 준비를 하다가 아침신문을 폈다. 박 기자의 글이 보였다. 배경그림은 14대 장인이 만들었다는 부러진 검과 장검을 나란히 놓고 찍은 사진이었다. 박 기자는 명성이 14대가 만들었다는 부러진 검의 상단에는 어딘가 부딪친 흔적이 남아 있다. 만약, 검과 부딪쳐 깨진 흔적이라면 부러진 검보다 더 뛰어난 검과 장인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다.

마당에 있는 노에 불을 지폈다. 불은 쉬 열기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황토가루 조개, 석회, 목탄, 벧짚을 물과 함께 섞어 넣었다. 그래도 불길은 더디기만 하다. 송풍기에 송진가루를 흘려 넣었다. 불길은 가파르게 1500도를 향해 오른다.

사흘이 지났는데도 노의 몸통에 열기가 남아 있다. 노 아랫부분을 열고 쇠를 꺼냈다. 불길이 미치는 모양대로 거칠고 삐죽삐죽한 쇳덩이를 꺼냈다. 마당 한쪽에 놓고 보니 거칠고 역센 대나무 뿌리를 닦았다.

오늘은 녹인 쇠를 두들겨 모양을 내는 날이다. 매질꾼 두 사람도 불렀다. 예전 같으면 어렵없는 일이지만 이제 혼자 해 내기엔 벅차다. 쇠를 만지고 두드리는 일은 늘 긴장된다. 40여 년 쇠를 만졌어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쇠를 노에 올리고 풀무질을 시작했다. 쇠의 빛깔이 선홍색으로 변했다. 집게를 들고 얼른 쇠를 꺼냈다. 900도 남짓일 것이다. 집게로 집은 쇠를 모루 위에 올리고 망치로 두 번 두드렸다. 신호를 기다리던 매질꾼이 양쪽에서 번갈아가며 힘껏 망치를 내려쳤다. 망치가 쇠를 내려칠 때마다 불순물은 불꽃이 되어 사방으로 흩어졌다. 새벽부터 시작한 망치질은 해거름까지 이어졌다. 오후가 되자 말을 할 때마다 입가에 마른 거품이 생겨났다. 의식적인 반복, 두드림, 내 눈엔 불에 단 붉은 쇠만 선명하게 보인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다. 그렇지만 멈출 수 없다.

단조로 이틀 접쇠 단조 가공으로 사흘을 무리했다.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가 잠을 깬 시간은 새벽 4시경이다. 넷가로 나가 세수를 하고 대장간으로 들어갔다. 미쳐 덜 풀린 피로로 어깨와 두 팔이 빠근했다. 화로에 불이 피웠다. 이젠 땀을 흘려도 불이 좋아진다. 겨울이 가깝다. 오늘은 검의 모양을 잡을 생각이다. 망치를 내려칠 때마다 땀이 붉은 쇠덩이 위에 떨어지면서 수증기가 되어 흩어졌다. 오후 서너 시부터 검에서 맑은 소리가 났다. 닷새 만에 단조 작업을 끝냈다.

실패를 거듭하다가 아버지의 방법을 따라 하게 된 것은 5년 전쯤의 일이다. 내가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실패한 뒤였다. 고집하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대장간 일은 변수가 많아 한가지로 정의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난 뒤였다. 재료, 당일의 날씨, 불의 온도에 따라 쇠의 성질이 달라졌다. 결국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포기했고 아버지가 했던 방식으로만 해보기로 생각을 굳혔다.

계량만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칠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공책을 편다. 계량의 틀에서 벗어나려 하고 불을 보고 쇠의 변수를 곧장 가늠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변수를 조절하는 감觸이 많이 좋아졌음을 느낀다.

쇠를 두드리고 펴서 검의 모양을 만드는 일은 단조다. 검의 마지막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담금질이다. 검의 성질을 만들어 주는 담금질이 남았다.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생전 모습 그대로 대장간에서 검을 만들고 있었다. 순간 아버지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공책의 그림이 살아 움직였다. 나는 움직이는 그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가 공책의 마지막 장을 넘긴 뒤 나를 쳐다보며 사라졌다. 나는 아버지를 부르다 잠에서 깬다.

대장간의 새벽공기가 차다. 대장간 옆의 넷가로 내려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대장간으로 들어가 그림공책을 폈다. 좀 전에 보았던 살아 움직이는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화로에 불을 지폈다. 붉게 변해가는 쇠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듣는 이도 보는 이도 없는데 나는 ‘조금만 더, 그렇지! 됐다’ 혼잣말을 했다. 평소보다도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윽고 집게로 검을 들고 열기를 가늠하다가 날 부분을 스치듯 물속에 넣고 빼기를 서너 차례 했다. 쇠와 불 냄새가 교차했다. 담금질을 마쳤다. 긴장이 풀리면서 몸에 한기가 몰려왔다. 물속에서 숨고르기를 한 검은 여전히 열기를 내뿜고 있다.

광목천을 솜베에 감았다. 화로 오른쪽 나무 좌대로 갔다. 수없이 좌절했던 그 자리다. 검은 마지막 남은 잔열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쇠처럼 단단한 나무 틈새에 검 끝을 걸었다. 이윽고 한 뼘 반 정도의 길이로 휘었다 놓았다. 솜베를 놓은 손에 땀이 묻어났다. 검은 너덧 번을 앞뒤로 흔들리다가 멈췄다. 나는 두 번을 더 반복하고 검신을 살폈다. 불기가 채 가시지 않은 검신에서 속을 알 수 없는 그을음이 묻어났다.

쇠줄로 거친 모양을 다듬고 솜돌에 올렸다. 솜돌의 수평을 확인하고 단단히 고정했다. 날의 위쪽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하고 중간 아랫부분은 7할 정도로 갈 작정이다. 연마작업을 더해 갈수록 검신은 시린 달빛을 닮아간다. 흑여 놓친 것이 아닌가 싶어 검은 찬찬히 살펴본다. 검은 몸신 어디에도 담금질의 열기가 터져 나온 곳이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해냈다. 아버지의 방법을 내가 재현해냈다. 그래 잘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연마작업을 마쳤다.

검신과 솜베에 음각을 했다. 오동나무로 검은 집을 만들고 무두질한 가죽과 어피魚皮로 솜베를 감는다. 어색함 없이 잘 맞는다. 오랜만의 작업이지만 이만 하면 무난하다. 화로 옆에 세우고 서너 발자국 뒤에서 바라보았다. 다가서면 금방이라도 검은 집이 저절로 열릴 것만 같다. 검은 서늘한 기운과 위엄이 느껴진다. 명성가 전시장에서 보았던 장검과 견주어도 크게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전화기를 들었다. 달려온 박 기자가 검은 주위를 한참 맴돌았다. 전시장의 사진과 비교해가며 검은를 살피던 박 기자가 확신에 찬 듯 두 손을 높이 들더니 한참만에야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최성 선생님 검은 특징인 격자무늬군요. 틀림없습니다.....

TV속보가 뜬 것은 오후 2시가 막 지날 때였다. 박 기자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명성가가 전시한 검중에서 주인이 다른 검이 있고 그 후손을 찾았다고 말을 시작했다. 그 근거로 검의 주인을 추적해온 많은 자료와 과학적으로 증명한 적외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었다.

“명성가의 전승 검은 가로무늬입니다. 14대의 부러진 검이 그 증거입니다. 단 하나 14대가 만들었다는 부러지지 않은 검 한 자루만은 격자무늬입니다. 명성가와 14대의 검 모두가 가로무늬인데 왜 한 자루만 격자무늬일까요?”

오래전 격자무늬로 검을 만들었던 최성이란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몰랐고 말도 어눌해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도검장이었던 그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고 모든 과정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의 뛰어난 검 제작 방법은 독특하고 어려웠습니다. 그의 아들이 40여 년의 노력 끝에 최성의 조선검 재현에 성공했습니다. 그 검은 명성가에서 전시하고 있는 격자무늬와 검의 길이와 폭의 크기, 스페와 문양까지 같습니다. 그렇다면 14대의 명성가 전시검은 진짜 명성가의 검일까요? 아니면 최성의 검일까요?”

진실은 명성가에서 알 것이고 결론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속보는 끝났다.

아버지에게 검은 어떤 의미였을까. 외롭고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또 무엇이였을까. 아버지는 공책에 글 대신 그림을 남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훗날 아들인 내가 아버지의 검을 재현할 것을 아셨을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찾아갔을지도 모를 그 곳, 명성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핸드폰이 울린다. 핸드폰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광목을 세로로 길게 잘라 천천히 새끼줄처럼 꼬았다. 검은 실로 표시해 놓은 중간을 배꼽에다 댔다. 정확히 두 바퀴를 돌려서 묶고 남은 반을 좌우로 나눈 뒤 밑에서 양 옆구리 위로 잡아 올린다. 끈을 잡고 검의 끝을 집어넣었다. 검이 왼쪽 옆구리 골반위에 가볍게 올라앉았다.

나는 화로를 향해 깊게 읊을 하고 강江과 바다를 향해 뒤로 돌아선다. 검을 지그시 누르며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검을 뽑는다. 그리고 검을 힘껏 내려뱉다. 강바람이 서늘하게 베여지는 소리가 들렸다.

산문 최우수상 : 판수(巫)의 노래

송 양 행

지난해 가을멸치를 잡은 이래로 오랫동안 후리막은 비어있었다. 원래 겨울의 낮개는 한산하다. 그렇다고 어부들이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멸치를 잡아 올리느라 헤어진 그물을 손보고, 어선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느라 어부들은 드문드문 자갈마당의 한구석에 있는 후리막에 모여야 했다. 그렇게 한가했던 긴 겨울이 지나고 경칩 절기에 들어서면 후리막은 어부들의 손길로 바빠진다. 젓갈용 멸치잡이 철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씨알 굵은 멸치를 잡는 시기라 어느 멸치 철보다 활기를 띤다. 어부들이 막장(慕長)의 지시에 따라 마지막으로 그물을 점검하거나, 목선의 이음새에 방수도료를 덧바르기도 하며 본격적인 멸치잡이에 대비한다. 물론 벌이야 소일거리로 잡은 잡어 몇 마리가 고작이지만, 동료들과 어울려 지난 멸치잡이의 무용담으로 보내는 시간도 벌이라면 벌이일 것이다. 그런 자리에는 선주가 내놓은 막걸리가 빠지지 않아 동료들의 시답잖은 허풍에 추임새를 곁들이는 재미가 더해진다.

“얘기 들었습니까?”

그물 손질을 끝내고 막걸리 잔을 들이킨 김판수가 술잔을 간이탁자 위에 내려놓자 임성욱이 뜬금없이 좌중을 향해 입을 열었다. 임성욱은 마을의 유일한 대학생으로 멸치잡이 철이 되면 가끔 후리막에 나와 일손을 더하는 학생이었다. 게다가 세상물정에도 밝아 부산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마을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전령사 같은 역할도 했다. 상기된 표정으로 미루어 오늘도 그의 진가를 어부들에게 보여줄 모양이었다.

“뭘 얘기?”

후리막의 막장을 맡고 있는 김판수가 눈을 홑뜨고 안경 너머 임성욱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묵은 찐지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질근거렸다. 강인한 눈매와 손질하지 않은 구레나룻이 그가 에둘러 말하지 못하는 성격임을 가늠케 했다.

“소식 들었어예? 낮개에 목재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예.”

“그게 무슨 소리고? 목재공장이라니 나무가 어데 있다고 목재공장, 그것도 바닷가에?”

“성욱이 자아 뭐라 카노. 머으? 목재공장? 예라 이 자숙아, 절에 가서 고기를 찾아라! 꺄꺄꺄!”

김관수를 비롯한 최만복 선주의 사단에 속한 어부들이 이기죽거리며 임성욱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들 뿐 아니라 까마득한 옛날부터 조상님들이 멸치잡이를 해 온 포구에 목재공장이라니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했다. 물론 일제강점기 때에 잡는 방식이 다소 변하였다 해도 분명한 것은 낮개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업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일이 바로 후리질이였다. 그런 그들의 본능과도 같은 어부로서의 자긍심을 임성욱의 한 마디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당연했다.

“이번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부두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어예. 낮개에는 목재를 수입하는 공장을 짓고 앞바다는 수입 원목 야적장으로 만든답니더.”

“그기이 진짜가?”

함부로 흰수작을 하지 않는 그의 얘기를 허투루 들을 수 없었던 김관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적어도 대학생이 하는 말이라 자기들과 같은 무지렁이들이 주워들은 얘기와는 차원이 다를 터였다. 더구나 새로 들어선 혁명정부에서 모든 국책사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형국이니 그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였다. 그렇다고 당장 그의 말에 수긍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김관수는 좌중을 쓱 둘러보며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 다들 정리하고 내일 봅시다. 그라고…… 성욱이, 내 쫘 보자.”

후리막을 나와 자갈마당에 선 두 사람의 머리 위로는 달이 한껏 부풀어 있었

다. 밝은 달빛 아래 천혜의 포구인 낫개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와 자갈 구르는 소리가 새삼 김관수의 귀에 정겹게 느껴졌다. 포구 아래 어딘가에 멸치가 들어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날이면 달빛 아래 선명한 멸치의 움직임을 가늠할 수 있다. 멸치 떼가 몰려든 낫개를 생각하자 김관수의 머리가 쭈뼛하고 곧추섰다. 멸치잡이 후리질을 하는 어부의 본능이었다. 어릴 적 다대포로 흘러들어와 멸치잡이로 잔뼈가 굵은 김관수에게 후리질은 그의 전부이며 삶 그 자체였다. 성격이 곧고 매사에 빈틈이 없어 다대포의 선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김관수를 망꾼이나 후리막의 일꾼으로 데려가기 위해 혈안이었지만, 평생을 최만복의 선단을 떠나본 적이 없는 최만복의 사람이었다.

배운 총각 임성욱의 말 한 마디는 김관수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자신의 삶인 멸치잡이가 낫개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뇌리에 스쳤다. 안 될 말이야. 그래선 안 돼. 어떤 위기감 같은 것이 전신에 스쳐가자 그의 검은 구레나룻 수염이 어둠 속에서도 크게 썰룩거렸다. 잔기침을 두어 번 한 뒤 김관수는 걸음을 멈추고 몇 걸음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임성욱이 자기의 옆에 이르기 기다렸다.

“성욱아, 니 아까 했던 그 말 사실인가?”

“예, 이번에 혁명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내년에는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한다는데…… 부산시 인구가 벌써 130만을 넘어 이런 낫은 멸치잡이보다 경제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그랬다네예. 그래서 해안가를 정비해서 새로 원목 수입항으로 만든답니다. 돼 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진짜 많습니더.”

“그라몬 우리는 큰일인데……. 어쨌든 잘 알았다.”

“지는 고마 가보겠습니다.”

“그래라. 아 참, 경숙이 공부는 좀 하더나?”

“마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몰라도 부산여상은 충분할 거 같습니다.”

근데 지는 자꾸 인문계 간다 카던데…….”

“그래, 나도 걱정이다. 인문계 보내면 대학 갈라 칼 끼고. 내 형편에 가스나 대학이 가당키나 하나.”

“지가 공부할라하면 얼마든지 길은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이소. 지하고 같이 대학 다니면 좋지예.”

“허허, 이래저래 걱정이다. 이제 다 컸는데 애비 말이라고 뭘 소용이 있겠나?”

방학이 되면 딸아이의 공부를 봐주는 선생으로서의 임성욱과 대화가 끝나자 김판수의 걱정은 곧 바로 코앞에 닥친 낯개 문제로 바뀌었다. 서둘러 선주를 만나 이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해안가를 벗어나 선주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어느 때보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단지 임성욱의 전언 때문만은 아니었다. 애써 일궈낸 지금의 행복이 송두리째 물거품이 되면 어쩌나 하는 보다 근원적인 걱정 때문이었다. 어떻게 버텨온 세월인데. 안 돼. 안 될 말이야. 자신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에 더해 선주가 이 문제에 어떻게 처신할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를 옥죄며 다가왔다. 불길한 생각의 이면으로는 공연히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멸치잡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린 임성욱의 말만 믿고 달뜬 자신의 경솔함을 탓하기도 했다. 아냐,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소식이 있었다면 선주가 귀땀이라도 해줬을 거야. 생각이 뒤바뀌자 마음이 다소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했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머리에 이고 다대국민학교 근처에 있는 최만복의 집에 당도했다.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된 기와집으로 멸치잡이 배와 모래채취선을 여러 척 보유하고 있는 최만복의 재력에 어울리는 그런 고가였다. 늘 드나들던 선주의 집이었지만 오늘따라 웬지 낯설어 보이는 것이 자신의 불안감 탓이란 것을 김판수는 잘 알았다. 선뜻 들어설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힌 김판수는 한동안 대문 앞에 장승처럼 서 있어야만 했다. 그러자 지나 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뇌리에 스쳐갔다.

어린 시절 연고 없이 떠돌던 그를 들었던 집, 이 집안에서 배운 후리질과 어로요들, 멸치잡이를 마치고 풍어소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잇을 수 있었던 고

아로서의 외로움. 어쩔 이렇게 오랫동안 이 집안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인지도 몰랐다. 그 덕에 아내를 얻을 수 있었고, 딸아이를 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저는 또 어쩐가. 작은 오두막이지만 제 집이라고 등기를 해놓고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어엿한 후리막의 막장으로서 모든 장부를 관리하는 중책을 맡고 있지 않은가. 돌이켜보건대 덤으로 산 인생이란 생각이 들었다. 기왕 죽었을 목숨이었는데……. 멸치에 관한 일 외에도 최만복이 음양으로 자기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현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행복이었다. 심지어 조상의 기일을 몰라 제사를 치르지 못하는 자신이 명절차례를 모실 때에는, 그 사정을 헤아린 최만복이 빠지지 않고 제수 생선을 아랫것들의 손을 빌려 차례 상에 올려놓지 않았던가.

“어이, 판수. 자네는 기제사를 올릴 수 없으니 차례는 누구보다 제대로 지내야 하네. 그래야 조상님도 자네를 부찰할 것이네.”

매사에 사려 깊은 최만복은 저에게 선주일 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같은 존재였고, 자신이 평생을 우러러 보고 살아 온 정신적인 지주임을 조금도 부정할 수 없었다.

마냥 과거의 생각만으로서 있을 수만은 없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대문을 크게 두어 번 두드렸다. 후리질을 한 날도 아닌데 찾아 온 김판수를 보고 행랑아범이 대문을 열며 의아해했다.

“어인 일로 왔소?”

“어르신 좀 뵈올라꼬예.”

사랑채에 들어선 김판수의 눈에는 찻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는 최만복의 모습이 보였다. 방안에는 알 수 없는 향기가 배어 있어 그는 코를 찡긋했다. 씩스름한 향이 나는 것이 언제가 자갈치에 나갔을 때 다방에서 맡아 본 커피 냄새 같기도 했다. 엉거주춤 문간에 서 있는 그를 향해 최만복은 손을 꼬덕이는 것으로 안으로 들기를 청했다.

“어서 들어와 앉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가까이 다가 선 탁자 위의 찻잔에서는 거무스름한 액체가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다. 그것이 커피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체 없이 용무를 알려야 했다, 최만복이 그의 텃수룩한 얼굴을 바라보며 궁금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 어르신께 여쭙볼 게 있는데예…….”

“뭔가?”

“다름이 아니고 후리질을 못하게 됐다는 소문이 있어서…….”

“아니, 누가 그래?”

“그저 들리는 소문에…….”

“들리는 소문이라니? 좀 자세히 말해 보게.”

“저, 다름이 아니오라…….”

김판수의 얘기를 듣고 난 최만복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주억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자네 말이 맞네.”

“예? …… 하몬 저희들은 우째 되는 겁니까?”

선주의 말은 언제나 법이었다. 따라서 임성욱의 말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김판수는 더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되물었다.

“후리어장에서 철수해야겠지. 적어도 내년까지는 말이야. 목재공장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낮개 앞바다를 원목 야적장으로 활용할 거란 말이 있어. 내년에 직할시 승격과 함께 그리 될 가능성이 커. 해서 말인데…….”

“해서…….”

현실을 직시한 그는 또 다른 인생이 자신의 앞에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린 시절 어디선지 모를 곳에서 이곳 바닷가까지 흘러와 배를 굶주렸던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어렴풋한 부모님의 잔영을 떠올리며 세상을 원망했던 어린 시절, 누구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 때 이 집 앞에서 구걸을 하다 쓰러진 자신을 먹여주었던 일.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을 겪으며 이 집의 머슴으로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일들. 많은 기억들이 빠르게 뇌리에 스쳐갔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김관수는 이번 일 역시 자신의 삶에 대한 또 다른 고비임을 알아차렸다.

“올해 후리질은 봄철에만 해야 할 걸세. …… 아마도 여름과 가을에는 작업이 어려울 거야.”

“으음…… 마을사람들은 다 우짖니까?”

“짐작건대 이주 명령이 내려질 거야. 포구 정리를 하면 다들 옮겨 가야지. 시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이주하게 될 거고. 일부는 목재공장에 취직을 하겠지.”

“네…….”

김관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만복의 이야기는 더 현실적이었다. 후리질을 못하게 될 경우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까지 선주의 입장이 아닌 가족의 입장에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의 생계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후리질에 필요했던 어구와 기물의 보존에 관한 것이었다.

“자네는 손재주가 뛰어나니 목재공장에 취직하면 될 터이고.”

“지는 나무에 대해서는 도통 까막눈인데 그 무슨…….”

“그런 걱정은 말게. 자네가 언제 멸치를 알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잖나. 배우면 다 그게 그거야. 그것보다 말이야. 후리질을 했던 어구들을 잘 보전해야 해. 전마선, 그물, 징, 팽과리를 포함해 모든 장부들까지…… 심지어 작업용 장화나 물옷까지도 모두 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다 쓸데없는 물건 아닙니까? 후리질도 못하는 마당에…….”

“그렇지 않아.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시 후리질을 생각할 거야. 일종의 문화에 대한 그리움이지. 후리질은 우리 고유의 어업이거든. 지금이야 어쩔 수 없이 포구를 목재 수입항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포구를 복원하려 할 거야. 그때를 대비해야 해. 그 일을 판수, 자네가 해줘야 해. 나야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자식들도 모두 도시로 떠났으니 자네가 책임지고 이 일을 맡아줘야 한다는 말일세.”

“지야 시키신 대로 하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옛 것을 찾는 것은 인지상정이야. 그러니 올해 첫갈 멸치 작업이 끝나면 후리질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게 되는 거지. 그 기억을 보완해주는 일이 후리질에 관련한 물건과 자료들이고…… 다시 말하면 역사에는 고증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일세. 자네가 그 보존의 주역이 돼야 해. 자네만한 후리꾼이 없지 않나. 그리고 소리도 그렇고…… 자네가 앞소리를 하며 어부들과 주민들을 가르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도 자네가 책임자야. 알겠나?”

“그래도 제가 어찌 감히…….”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네. 그런 일이 닥치면 자네가 해야 할 일이란

게지. 나도 자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거야. 난 자네가 멸치 잡는 어부로 후손에게 기억되는 것보다 이런 쪽에 이름을 남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한번 심사숙고해보게.”

“네, 어르신.”

임인년(1962년) 들어 첫 후리질이 있는 날이었다. 최만복은 제주로서 제복을 갈아입고 제 올릴 준비를 마쳤고, 동네 원로들 역시 하나 둘 제단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멀리 두송반도가 굽어보이는 당산에 올라 풍성한 제사음식을 차려놓고 풍어제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는 선주와 어부를 위한 제의일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마을사람들의 단합을 위한 동제의 성격을 지닌 행사이기도 했다. 김판수 역시 후리막장의 자격으로 줄의 한편에 서서 제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최만복의 독촉으로부터 풍어제는 시작되었다.

“유세차 임인년 음력 삼 월 보름, 대한민국 부산시 서구 다대포에서 선주 최만복이 성황대신께 고합니다. 올해도 마을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물에 멸치를 가득 들게 하시어 어부님들 풍요롭게 하시고, 만수무강하기를 두 손 모아 비나이다.”

당산의 신명들은 낮개의 자갈마당에서 용왕제를 치르고 난 뒤에야 제대로 흠향할 수 있었다. 물론 사람들의 안위를 위한 음복과 제신을 위한 고수레도 빠지지 않았다. 날이 뉘엿해지자 노련한 망꾼이 야망대에 올라 올해의 첫 후리질을 위한 멸치 떼를 살피기 시작했다. 멸치의 움직임은 보름달이 흰히 비치는 바다에서 긴 음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멸치의 무리를 발견한 망꾼이 징소리를 울려 바다에 나가 있는 어선에 그물을 내리라는 신호를 함과 동시에 후리막을 지키고 있던 어부들도 팽과리를 쳐서 주민들에게 멸치가 들어왔음을 알린다. 어떤 이는 이미 벼릿줄에 다닥다닥 붙어서 힘을 쓸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팽과리 소리를 듣고서 마당밭로 한해의 첫 후리질에 참여하기 위해 자갈마당 위를 달음질한다. 야망대에 오른 망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첫날의 후리질이다.

“니 뭐하고 있노? 그물 내리라카이! 단디 안 하나!”

징소리를 들은 선도(船都)는 배에 타고 있던 너덧 명의 어부들에게 그물을 내릴 것을 지시한다. 날개그물에 붙은 벼릿줄 한쪽을 해변에 남겨두고 다른 쪽을 영키지 않게 해안선을 따라 길게 그물을 펼친다. 반대편 그물의 벼릿줄이 물가에 나올 때쯤이면 이미 멀치 떼는 그물 안에 들어와 가야할 방향을 잃고 퍼덕거릴 수밖에 없다. 동네사람들이 모두 벼릿줄에 촘촘히 붙어 한 치의 틈도 보이지 않을 즈음에 막장인 김판수의 선창으로 후리질을 시작한다.

“보소, 어부님네! 메르치 가득하니 그물 한번 힘껏 땡집시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목청껏 대답하는 것으로 한 해의 첫 후리질을 시작한다.

“야아!”

“동해바다아 메르치이도!”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다대포오로 몰려어온다!”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서해바다아 메르치이도”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다대포오로 다아어온다!”

김판수의 목청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소리를 질러 버릿줄에 붙어 있는 어부들과 마을사람들을 독려한다. 땀이 흥건히 온몸을 적셔도 줄을 당겨야 하는 고된 후리질이지만, 그물의 중심이 바다 위로 드러나고 멸치가 퍼덕이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 후리질은 쉽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김판수의 앞소리에 뒷소리로 화답하며 후리질을 멈추지 않는다. 후리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판수는 그물 속의 멸치의 중량과 부피를 가늠해가며 그물이 상하지 않도록 박자를 늘였다 당졌다 하며 후리소리에 빠져든다.

“철 따라아서 오는 메르어치!”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방어어인들 막을소오냐!”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신명을 부르는 소리처럼 김판수의 음색에는 범할 수 없는 영기(靈氣)가 서려 있었고 그 모습은 어부의 모습이 아닌 마치 용왕의 사자처럼 숭엄했다. 그는 고아로 세상에 버려진 후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는 채 최만복의 집에 애머슴으로 거뒀다. 영특하고 성실한 그를 본 안방마님의 배려로 신명을 받들고 살라는 의미로 판수(巫)란 이름을 얻었다. 그런 그에게 후리소리는 그의 내면이 만들어내는 세상에 대한 회한과 감사의 마음을 교차해 토해 내는 노래였다. 김판수가 앞소리를 할 때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영혼을 실었고, 사람들이 뒷소리를 할 때에는 속으로 함께 하며 한갓 생선에 불과한 은빛 멸치에게 경외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런 경외감은 숨 쉬는 은빛 멸치의 지느러미와 하나가 된 듯 김판수의 목청에서 후리소리로 살아났다. 그가 내지르는 은빛 지느러미의 노래는 그의 삶이자 멸치에 대한 찬가였다. 멸치가 없었다면 지금의 그는 있을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한시도 안 해본 적이 없었다. 어부 김판수가 임인년 첫 후리질에 임하는 모습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멸치와의 별리를 예감한 듯한 회한의 소리로 넘쳐났다. 어쩔 그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후리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매를 훔칠 이유가 없었다. 이미 그의 후리질에는 사람의 감정과 고통을 넘어선 다른 세계와 교통하는 영적인 순결함이 내재된 터

였다. 마치 사제가 신을 영접하듯 그가 바다와 은빛 멸치와 소리를 대하는 의식은 삼위가 일체여서 한 치의 소홀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남원 옥주우웅에 춘향이이느!”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이도령 오기이만 기다리이고!”

“어기여차, 당겨나 주소!”

“낮개 바다아에 김파아아아아안수느!”

“어기여차 당겨나 주우우우우주소!”

“지 부모오오오 오기만 기다리이이다!”

“어기여차, 당겨나 주우우주소!”

“다대포오라 어부우들은!”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메르치 오기이만 기다리이다!”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멸치를 광주리에 담아 옮겨 젓갈 항아리에 쟁여놓는 것으로 멸치잡이는 마무리가 되었다. 동네아낙들은 올해 첫 수확인 잡어 몇 마리와 멸치가 든 소쿠리를 들고 늦은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올망졸망한 자식들이 어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아낙들의 수다가 사그라지자 젓갈이 몇 통인지, 참석한 어부가 누군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 꼼꼼히 기록한 김판수는 홀로 후리막을 나섰다. 밝은 보름달이 늦은 하늘에 걸려 있어 흰한 자갈마당 위로 선선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노동의 피곤함도 잊은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목재공장이란 단어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생각을 하자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 같았다. 새로운 현실에 대한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신명으로 풀어내던 후리소리를 더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상실감이 전신을 휘감은 탓이었다.

후리질을 할 수 없다면 자신이 무얼 할 수 있을까. 야망대에 올라 멸치를 살피고, 그물을 당기고 소리를 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자신이 해 온 일의 전부였다. 자기가 지닌 신명의 근본은 바로 은빛 멸치였고 그 이면에는 부모 없이 자란 자신의 한이 서려 있었다. 자신을 거둬준 최만복의 배려로 이제껏 살아왔지만 후리질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아내는, 딸은 자신을 뭐라 할까. 변명할 것도 핑계를 댈 것도 없는 쇠락한 어부로 전락해버린 인생이 달빛 아래 앙상한 뼈대만 남은 것 같았다.

오늘따라 더욱 넓게 느껴지는 자갈마당을 가로지르며 쾌지나칭칭나네를 웅얼거렸다. 처연한 달빛에 그의 텃수룩한 수염과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바다인지 땅인지 경계가 모호해졌다. 후리질을 할 때 느끼던 삼매(三昧)가 홀연히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멸치의 영혼이 이끌 듯이 김판수의 육신은 마을이 아닌 낯개의 앞바다와 점점 가까워져 갔다.

“가자. 가아자. 어서어 가아자. 쾌지나칭칭나아네.”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었다 다시 비틀거리며 여태껏 잡아 올렸던 멸치가 사는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다시는 멸치를 잡지 않아도 영원히 멸치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늘의 달은 부처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김판수의 구레나룻은 모두 사라지고 얼굴에는 관음의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이수 건너 백로 가자. 쾌지나칭칭나네.”

그의 노래가 점차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달빛이 내리는 자갈 위에는 후리질로 짓이겨진 은빛 멸치의 비늘과 내장이 반짝이며 물속으로 향하는 그를 배웅하였다.

“바닷가에는 자갈도 많…… 다. 왜…… 지…… 나!”

경숙이 남편과 함께 다대포를 다시 찾았을 때 어릴 적 보았던 낫개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변화는 시간의 흐름보다 더 빨리 다대포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아버지의 기일이면 낫개를 찾는 경숙이 언제나 느끼는 감정이었지만 흐릿한 고향의 기억과 아버지의 잔영이 매번 그렇게 아쉬울 수 없었다. 낫개가 이름처럼, 낫을 닮은 포구 그대로 보존이 되었더라면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이 더 많지 않았을까. 어쩔 수 없었던 부정(父情)에 대한 회환이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두송반도 언덕바지에 들어서 있었고, 낫개의 명소였던 자갈마당도 자취를 감추었고, 원목을 수입해서 보관했던 낫개의 앞바다도 모두 매립되어 이미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대포와 두송반도 사이로 길게 방파제가 뻗어 있어 드문드문 망중한을 즐기며 낚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방파제 너머로 조선소의 크레인이 이곳이 이제는 멸치의 바다가 아님을 여실히 증명했다. 실로 여기가 아버지가 생명을 바쳐야 했던 은빛 멸치의 바다였는지 알기 어려웠다.

“장인어른이 그날 왜 그렇게 가셨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지하철의 계단을 힘겹게 오르던 임성욱이 경숙을 쳐다보며 중얼거리듯 입을 열었다.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유서까지 남기신 것을 보면 오랜 생각의 결과였겠죠. 아버지의 후리질은 그저 일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뭐랄까…… 바다에 대한 종교적인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순교

자의 행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전 제 아버지로서는 그를 미워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를 미워하진 않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장인어른이 쉽게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 녹음해서 남긴 후리소리만 해도 그렇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리질의 시기와 멸치의 종류 그리고 어부들의 새경까지. 작정을 하신 게 분명하지만 당신에게는 못 할 짓을 하신 게지.”

후리소리보존협회 소리꾼 전영진 씨와 사무국장인 박미옥 씨가 경숙과 임성욱을 반갑게 맞이했다. 매년 음력 삼월이면 보존회를 찾는 노구의 두 사람을 잘 아는 터였다.

“어르신들, 어서 오세요. 올해는 코로나 땀에 못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건강하시죠?”

단출한 사무실에는 후리질을 시연하는 사진들이 벽면을 차지하고 있었고, 각종 민속 문화제에서 수상한 상장과 상패들이 진열장에 가득했다. 비교적 새 것인 컬러사진들 사이로 빛바랜 흑백사진이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사진에는 검은 구레나룻이 풍성하게 자라 한눈에도 그가 김판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태어난 연도 대신에 써 넣은 물음표의 옆으로 1962란 숫자가 쓰여 있었다. 경숙과 임성욱이 사진 아래에서 묵념을 하는 사이 전영진 씨와 사무국장이 작은 제사상을 들고 나왔다. 언제나 김판수의 기일이면 하는 간단한 제사의식이지만 오늘따라 더 설렁한 것이 유독 코로나 탓만은 아닌 듯했다.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 가는 후리질로 김판수의 넋이 쓸쓸히 흠향해야 하는 탓이었다.

“김판수 옹이 자료를 남기지 않으셨으면 후리소리는 명맥이 끊겼거나 더 힘들게 전승되고 있겠죠.”

제사를 마친 후리소리 기능보유자인 전영진 씨가 음복을 마친 후 입을 열었다.

“제가 충청도에서 내려와 이 소리를 접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특히 후리소리와 마지막 마당인 풍어소리에 반해 이곳에 정착했지요. 정말 조상들의 생활유산으로 이 어로요를 후세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접한 것이 김관수 어른의 녹음테이프였어요. 당시 제 스승인 김암우 옹이 당신의 소리와 그 테이프와 비교해 가면서 저에게 소리를 가르쳤습니다. 정말 김관수 어른의 혼을 실은 소리에 스승의 열정이 더해져 지금의 제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녹음된 김관수 어른의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단순한 어로요가 아니에요. 무슨 다라니를 읊조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네. 장인어른의 소리는 살아 있는 영혼의 소리였어요. 저도 잘 압니다. 함께 낫개에서 후리질할 때 하셨던 앞소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디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미 콤팩트디스크로 만들어진 김관수의 음원은 보존회에서 관리 중이었고 문화재청 자료실에도 mp3파일로 보관 중인 터였다. 경숙은 소름 돋는 긴장감으로 아버지의 소리를 기다렸다. 전영진이 익숙하게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을 만지작거리자 곧 이어 경숙과 임성욱의 귀에 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쾌지나칭칭나네.”

보존회 사무실에 김관수의 소리가 흘러나오자 그를 삼켰던 낫개의 검은 바다가 스멀거리며 경숙의 상념 속으로 밀려들어왔다. 검은 바다가 은빛 멸치의 생명이듯이 바다 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김관수의 소리가 다시 생명의 소리로 회귀한 듯했다. 그렇게 파도에 실려 온 부활의 소리는 경숙의 가슴에 절절하게 사무쳐 그리움의 포말을 일으켰다 사라지곤 했다. 경숙은 김관수의 영혼을 부여잡고 물었다. 혹 그날 저를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마지막에 함께 하였을 쾌지나칭칭나네 속에 행여 딸은 자리하지 않았는지…….

보존회의 사무실에 소리가 가득 찰 때쯤 경숙과 임성욱은 간단히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관수의 소리가 끝나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터였다. 낫

개의 멸치잡이가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쾌지나칭칭나네가 다대포의 염원이 되기를 소망하며 멸치잡이 환수(巫)의 마지막 노래에 늙은 딸은 기꺼이 사무치며 자리를 떴다.

“다대포는 메르치라. 쾌지나칭칭나네. 메르치는 다대폴세. 쾌지나칭칭나네.”

산문 우수상 : 을숙도생태공원 사하행복아파트 A동 5층

최 덕 천

1년 가까이 비워졌던 을숙도 생태공원 사하 행복 아파트 A동 5층에 달팽이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새 아파트가 제 주인을 모두 찾은 것 같네!’

바로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던 고니 부부는 새로운 이웃이 생겨 기뻐했습니다.

달팽이 가족이 이사를 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아랫집으로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고니 부부는 문 앞에서 달팽이 가족을 웃는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이웃이 누군가 했는데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달팽이 가족은 고니 부부에게 이사 떡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사 떡입니다. 이 떡 좀 드셔보세요.”

“고맙습니다. 맛있게도 생겼네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지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집을 옮겼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라 아직 아기가 없는 고니 부부는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함께 퇴근한 고니 부부는 이사 온 달팽이 아저씨를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니 부부가 먼저 인사를 했지만 달팽이 아저씨는 조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좀 실내에서 걸을 때 사뿐히 좀 걸어주세요.”

“아래층에 소리가 크게 울리나 보군요. 조심하겠습니다.”

고니 부부는 미안해하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니 아내는 승강기 구석에서 서 있는 달팽이 아저씨가 들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실내에서 우리 조심히 걸도록 합시다.”

며칠 후 달팽이 아저씨가 고니 부부의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필요?”

“저희 가족이 소리에 예민해서 이사를 했다고 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위아래 층 살면서 예의 좀 지켰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니 부부는 다시 한 번 달팽이 아저씨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달팽이 아저씨가 돌아간 후 고니 부부는 지난날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보! 우리는 아기도 없는데 왜 자꾸만 달팽이 아저씨가 시끄럽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

“달팽이 아저씨가 소리에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걷는 것만으론 아래층에 들리지 않거든.”

“혹시? 그것 아닌가요?”

“뭐?”

“우리의 방귀 소리 때문에…….”

“설마?”

“그럼 당신이 방귀를 한번 꺼 보세요. 과연 이번에도 달팽이 아저씨가 또다시 올라오는지 봅시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방귀 소리가 아파트 아래층까지 들린다는 거야?”

“시험해 보자니까요!”

아내의 요청으로 고니 남편은 ‘뿌지직 뽕뽕’ 하고 방귀를 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뽕뽕 뽕오옹 뽕’ 하고 연이어 방귀를 또 췌습니다.

잠시 후 고니 부부의 집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달팽이 아저씨였습니다.

달팽이 아저씨의 얼굴은 무척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금방 다녀간 지 20여분도 채 안 되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슨 실험을 해서 그랬습니다.”

“무슨 실험이요?”

“아닙니다. 다음부터 정말로 주의하겠습니다.”

고니 부부는 달팽이 아저씨에게 거듭 머리를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천연 자연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을숙도에 사는 이웃들끼리 큰 사고 나기 전에 조심합시다.”

달팽이 아저씨는 아주 무섭게 말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달팽이 아저씨가 아파트 아래층으로 돌아가는 광경을 보고 고니 부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니 부부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이불을 함께 덮어 썼습니다.

그리고는 웃음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으하하하!”

“푸하하하!”

“당신이 낀 방귀 소리가 아파트 아래층까지 들리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럼 층간 소음의 원인이 바로 내 방귀였다는 거야? 나는 설마 했는데.”

“당신이 방귀를 조금 줄여요.”

“내가 어떻게 방귀를 줄여. 당신은 방귀를 참을 수 있어?”

“방귀를 낄 때 밖에서 끼면 되잖아요!”

“그게 말이 돼? 어떻게 방귀를 낄 때마다 밖에 나간다는 거야? 추운 겨울에는 어떡하라고?”

“안 그러면 자꾸만 달팽이 아저씨가 계속 올라올 테니까 당신이 참아보세요.”

“그럼 당신은 방귀가 나오면 어쩔 생각인데?”

“나는 당분간 밖으로 나가서 방귀를 끼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니 부부는 당분간 집에서 마음대로 방귀도 못 끼는 생활을 했습니다.

한 달 후 추석 명절이 되자 고니 부부의 친척들이 고니 부부를 만나러 을숙도 사하 행복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이 때, 고니 부부는 아래층에 사는 달팽이 가족을 의식해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방귀가 나오게 되면 엉덩이에 이 풍선을 데고 방귀를 끼세요.”

“참! 유별나다. 내 집에서 마음대로 방귀도 못 끼다니 말이야.”

“이사 온 달팽이 가족이 유독 층간 소음에 민감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게 층간 소음이니? 방귀 소음이지.”

고니 부부는 달팽이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 날 고니 부부의 친척들은 몸에 신호가 오면 화장실로 들어가 엉덩이에 풍선을 데고 방귀를 끼었습니다.

방귀는 풍선 속으로 들어가 풍선을 빵빵하게 부풀렸습니다.

고니 부부의 친척들은 밤늦게 돌아갔습니다.

화장실에는 방귀 소리가 들어있는 풍선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보! 방귀 소리를 담은 이 풍선들을 어떡하죠?”

“그러게 말이야. 뭐 좋은 수가 없을까?”

고니 부부는 풍선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하다가 우연히 TV에서 야구 중계 방송을 봤습니다.

“맞아! 저거야!”

다음날 고니 부부는 풍선들을 차에 싣고 부산 사직 야구장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풍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유명한 부산 사하구의 명소 을숙도에서 출시된 태풍 풍선입니다. 이 응원 풍선 하나면 상대방의 팀을 압도하는 엄청난 소리를 발휘합니다.”

고니 부부는 부산 사직 야구장 입구에서 풍선 하나를 터트려 시범을 보였습니다.

“푸~~아~~악~~”

그 소리는 어마어마해서 야구장 안과 밖에 있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고니 부부는 한 번 더 다른 풍선을 터트려 시범을 보였습니다.

“파~~파~~팍~~”

이전에 터트린 소리와 다른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야구장에서 표를 구입하려 줄을 서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니 부부에게 다가와 너나 할 것 없이 풍선을 사갔습니다.

“그 풍선 얼마예요?”

“하나에 오백 원입니다.”

“그 풍선 두 개만 주세요.”

고니 부부가 가져온 풍선 100개는 십 여분 사이에 불티나게 모두 다 팔렸습니다.

고니 부부는 을숙도 사하 행복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새 풍선 500개를 샀습니다.

“여보! 살다보니 이런 경우도 있네요. 방귀 소리를 팔다니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의외였어. 야구장에서 풍선이 안 팔리면 어떡하나 걱정했거든!”

“야구장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고니 가족들의 방귀 소리라는 것을 꿈에도 모를걸요?”

“당연히 모르겠지. 아마 사람들은 풍선을 터뜨릴 때 나는 커다란 소리를 듣고 너나 할 것 없이 요술 풍선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너무 웃겨요!”

“나도 웃기다고 생각해.”

“그럼 우리 같이 웃어 볼까요?”

“하하하하! 호호호호!”

고니 부부는 을숙도 사하 행복 아파트로 돌아오는 내내 차안에서 웃고 또 웃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해서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고니 부부의 웃음은 그치지 않았습다.

바로 그 때 고니 부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달팽이 가족을 만났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보죠?”

달팽이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지만 계속해서 고니 부부는 웃기만 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달팽이 아저씨는 궁금해서 다시 말했습니다.

“무슨 재미난 일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좀 웃읍시다.”

“저희가 웃는 이유가 모두 아저씨와 관련이 있거든요.”

“저와 관련이 있다고요?”

고니 부부는 달팽이 가족에게 야구장에서 방귀 소리가 담긴 풍선을 팔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달팽이 가족은 고니 부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것 맞네요.”

“기분 나빠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잠시 후, 고니 부부와 달팽이 가족은 승강기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고니 부부의 아내가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고니 부부의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입모양으로 ‘알았어!’ 라고 했습니다.

고니 부부의 남편이 달팽이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이 풍선을 팔게 된 것도 아저씨 덕분인데 저희 집에 가서 차 한 잔 하고 가시면 어떠세요?”

달팽이 아저씨는 헛기침을 하며 달팽이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달팽이 아내는 밝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 후, 고니 부부와 달팽이 가족은 같은 층에서 함께 내렸습니다.

먼저 고니 부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고니 부부의 집에는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방지용 매트가 문 입구에서부터 거실전체에 걸쳐 깔려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달팽이 가족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들어오시고 뭐하세요?”

달팽이 가족은 소파에 앉아 다시 한 번 주위를 둘러 봤습니다.

층간소음 방지용 매트는 거실뿐만 아니라 부엌을 비롯해 화장실까지 깔려 있었

습니다.

달팽이 가족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소파에 앉아있던 달팽이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이도 없는데 이 많은 매트를 깐 이유가 저희 아저씨 때문이었나 보죠?”

“네.”

순간 달팽이 아저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과상을 준비하는 고니 부부가 듣도록 이번에는 달팽이 아내가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위층에 사는 새댁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귀가 너무 예민해서 문제라고 했죠? 내일 당장 병원에 가 보세요.”

“아주머니! 아저씨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도 잘못된 게 있어요.”

달팽이 아내는 계속 달팽이 아저씨에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귀를 검사해 보지 않으면 내가 끌고 갈 테니까 알아서 해요.”

달팽이 아저씨는 달팽이 아내의 말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해.”

달팽이 아저씨가 혼나는 광경을 보고 있던 고니 부부는 뒤돌아서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달팽이 아저씨도 고니 부부에게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차를 마신 후 달팽이 가족은 고니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니 부부와 달팽이 가족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오래도록 나누었습니다.

달팽이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집으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희 아저씨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방귀를 끼세요.”

고니 부부와 달팽이 가족은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이 되었어도 고니 부부는 화장실에 풍선을 마련해 놓고 방귀가 나오면 화장실로 가서 엉덩이에 풍선을 데고 방귀를 끼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구장에 가서 또 다시 응원용 풍선으로 500원에 한 개씩 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산문 가작 : 끝자리에서 자신을 만나보면

박 덕 은

모처럼 다대포 물운대 둘레길을 걸으며 나는 내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테이프를 빨리 감기하듯 미리 앞서가서 마지막을 볼 수 있다면 과열된 하루에서 힘을 뺄 수가 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머무름이 허락된 그 집을 들여다봤을 때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였다. 억지로라도 맨 끝자리로 가서 자신을 만날 필요가 있다.

무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산비탈에 조가비처럼 엮여 있는 생이집. 당시 우리는 그곳을 상여집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두들 생이집이라고 했다.

'시체를 실어 나르는 제구인 상여를 넣어 두는 곳, 생이집!'

어린 시절 우리의 뇌리에 생이집은 단순히 그런 역할만을 하는 곳이 아니었다. 무시무시한 어떤 힘이 잠재되어 있는 것만 같은, 왠지 두렵고 오금을 저리게 하는 그 무엇이 들어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이었다. 생이집이라는 단어에 입술이 닿기라도 하면 독이 있는 전갈에게 물리기라도 하는 듯 우리는 다들 소스라치며 무서워했다. 생이집 근처에서는 죽음을 건너는 발소리들이 밀려드는 듯 바람소리가 났다.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갈대의 울음이 알 수 없는 어딘가로 끌려가며 으스스했다. 생이집 근방을 지날 때면 아무리 간 큰 녀석들이라 할지라도 입을 꼭 다물었다. 숨을 죽인 채 무엇에겐가 쫓기듯 뿔박질로 이곳을 지나쳤다. 내가 유심히 보니, 상급생 형과 누나들도 그리고 동네 어른들도 이곳을 지날 때면 무의식중에 발걸음을 아주 빨리 했다. 등하곶길 중에 제일 무서웠던 곳은 역시 생이집 앞을 지날 때였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생이집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했다. 엄밀히 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다. 그 당시 나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것 때문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내가 직접 돈을 벌어서 다녀야 했다. 혼자서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지, 넘어지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많은 것들이 염려스러웠다. 그런 두려움들 탓인지 생이집에 대한 꿈을 자주 꾸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우리는 도전을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다. 죽음을 거부하고 오래 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평정심으로 이끌어 왔던

삶의 균형 감각을 깨뜨리기도 한다. 이유야 어떻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온전한 하루를 살 수가 없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당연히 온다고 여기며 사는 건방진 하루, 내일이라는 시간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기며 사는 소심한 하루, 그렇게 감정적으로 치우친 하루를 나는 살고 싶지는 않았다.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지 못해 내 감정이 넘치거나 부족하여 삶의 방향을 잃고 싶지는 않았다.

어느 날, 나는 혼자서 고향길의 생이집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한겨울로 접어드는 그 무렵이었다. 대학생이 되어 모처럼 가보는 고향길은 참으로 정겨웠다. 여기저기 풍경들이 눈물겹도록 반가웠다. 여러 곳이 많이 변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이 옛날 그대로였다. 문둥이 피똥이나 생이집도 여전했다.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그대로 엮여 있었다. 두 손으로 바지 앞을 가리지 않고 문둥이 피똥 앞을 의연히 통과한 나는 산비탈에 있는 생이집을 향해 발두령으로 성큼 들어섰다. 발두령이 끝나는 곳부터 갈대숲이 우거져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갈대숲은 멀리서 보기와는 달리 내 키를 넘어설 만큼 훌쩍 컸다. 여기저기 덜 녹은 눈이 듬성듬성 널려 있을 뿐, 사방은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별판 쪽을 힐끗 한 번 돌아봤으나, 사람의 그림자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갈대숲을 헤치고 생이집 쪽으로 다가가는 데는 한참이나 걸렸다. 드디어 갈대숲이 끝나고, 생이집 앞에 이르렀다. 생이집의 문은 산꼭대기 쪽,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 나 있었다. 생이집 문은 의외로 컸다. 하기가 큰 상여가 들락날락거리려면 그런 정도의 크기는 되어야 할 것 같았다. 생이집 문은 두꺼운 판자로 되어 있었다. 옛날 우리집 소슬대문과 비슷했다. 문에는 열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 언제나 죽음은 예고도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듯 문은 잠겨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힘을 잔뜩 주어 문을 열어야만 열릴 것 같았다. 팔에 힘을 주어 문 고리를 힘껏 끌어당겼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더디게 열릴 거라 생각했던 생이집 문이 기름칠 위에서 미끄러지듯 스르르 열렸기 때문이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으로 다가온 듯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쳤다.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생이집 안에는 갖가지 제구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마을에서 자주 본 모습 그대로였다. 앞의 단강과 장강, 위의 양장, 뒤의 보장도 그대로였다. 상여 앞뒤로 따라붙은 각종 기들과 장신구들도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공포 때문에 우리는 실체적 진실과 마주하기를 두려워한다. 짙은 색의 선글라스를 벗고 바라보면 되는 것을 어두워서 두렵다고 겁부터 먹는 것이다. 익숙하게 들어왔던 속설들에 대해 왜 의문을 갖지 못했던 것일까. 왜 타인의 목소리를 나의 목소리라 여기고 나의 목소리가 먼 훗날 너의 목소리가 되어

야 한다고 우격다짐처럼 믿어 왔을까. 나는 그동안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두려움과 공포에 갇혀 하루를 살았던 것이다.

생이집 가운데에 놓여 있는 상여가 눈에 들어왔다. 작년에 돌아가신 큰아버지는 지상에서의 마지막을 이 상여에 맡겼다. 큰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누울 자리가 이곳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일까. 큰아버지는 늘 따뜻한 눈길로 나의 단점을 개성이라고 바라봐 주며 품어 주셨다. 내가 불안한 기색으로 안달하며 뭔가를 하고 있으면 허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곤 했었다.

"천천히 해라. 누가 잡으러 오냐?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매 한 가지다."

그 당시에는 '매 한 가지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 늘 바빠 살아갔다. 습관처럼 나도 바빠 움직였다. 큰아버지는 다른 어른들과는 달리 여유가 있었다.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에서 여유가 느껴졌다. 나도 언젠가는 이 상여에 나의 마지막을 맡길 것이다. 두려움 일색이었던 상여가 달리 느껴졌다.

끝자리에 섰을 때 오히려 불안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게 해주는 것들이 있다. 그 고요한 마음이 내가 선 자리에서 생의 속도를 조절하게 해준다.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며 하루를 살아가게 해준다. 나는 생이집을 다녀온 후 조금은 더 여유로워지고 있었다.

아까는 몰운대 전체가 안개에 잠겨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부드러운 해안선이 눈에 들어온다. 그렇다, 저 몰운대처럼 아기자기하게 살아가자. 숲과 기암괴석과 파도와 해안선이 서로 완만히 살아가듯, 그리하여 학이 날아가는 듯 우아하게 살아가자.

운문 대상 : 감천, 그 골목

김 은 혜

푸른 지붕 잎맥을 채우고 돌아오는 밤
낡은 벽화에 그려진 비릿한 물고기 비늘
붉은 가로등 불빛에 몸을 뒤척인다
좁은 골목들이 엮여있는 회로 사이에서
먼지에 덮인 방은 홀로 주파수를 맞춘다
아버지는 달팽이관처럼 등짝 웅크린 채
무음이 되어가는 허공을 듣는다
듬성듬성 빈틈이 보이는 정수리 위로
반질하게 새어나온 하얀 안테나들
공중에 온기 없는 숨들이 공명하자,
아버지가 얼굴 위로 느슨한 현을 당긴다
오래된 악보를 삼켜낸 아버지는 그저
낮은 한숨 몇 개를 음표처럼 달짝인다
알 수 없는 기호처럼 아버지의 글자들이
단 한번도 표음되지 못한 채 바스라진다
몇 개의 꺾불들이 어둠 속에 차가워지고
아버지가 휘어진 안테나를 달고 뒤척인다
낡아가는 뒤통수에 수신되는 작은 음파들
재생되지 못한 말들이 파동을 타고 온다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간 아버지는 어디쯤에서
작은 꺾불을 따뜻하게 기울이고 있을까

빗금이 쏟아지고 전류가 흐르는
새치가 번뜩이는 아버지의 둥그런 뒷모습
그 꼭대기 마다 파동처럼 바람이 분다
멀리, 가로등 번진 어두운 골목 아래
허공을 삼킨 물고기가 아가미를 빼금거린다.
새벽이 한걸음 한걸음 걸어온다

운문 최우수상 : 을숙도가 온다

최 형 만

모래가 쌓일수록 갈대도 길어지는 곳
갈밭 길을 걸으면 놀란 갈게들이 흩어진다
지나온 시간보다 밀려온 날이 많은 을숙도는
갯바람에 그을려도 겁어질 줄 몰랐을까
남새밭 너머 불어온 바람에도 메밀꽃을 피운다
흐르는 강물의 소리로 계절을 말할 때마다
고니는 오래된 저녁을 날았는데
큰기러기는 몽툰 부리로 갯벌을 파헤쳤다
새가 많고 물이 맑아 을숙,
얼핏 개흙을 읽어가는 이름이다
천삼백 리 물의 여정이 하구에서 끝날 때
철새는 해 질 녘 어느 하늘을 날았을까
낙조에 물든 날갯짓 따라 사각사각 흔들리는 을숙,
둘러보면 떠밀린 에덴처럼 멀리 있다
갯내가 좋아 갯메꽃을 피우는 사하의 밤에
철새가 물고 온 울음도 모래탑을 쌓는데
싱싱한 강바람에 얼굴을 돌려온 세월
은빛 물살을 낚아챈 붉은부리갈매기가 떠나면
나는 어디에서 불어질 수 있을까
세모고랭이 피면 상처도 연꽃이어서 을숙,
팽팽하게 걸린 현수막에는 생태체험이 적혀있다
바람 부는 날에 혼잣말을 해도
젖은 땅을 빼곡하게 기억하는 언어들
물그림자 그림처럼 걸리면 을숙도가 온다

운문 우수상 : 쥐섬 솔섬 고리섬의 시간

고 훈 실
(고 마 리)

그 섬의 안부를 물을 때마다
안개바람이 일었다
몰운대 어디메쯤 긴 목을 빼고
시간의 지층이 단애를 이룬 섬과 섬의
꼬리를 본다
손 내밀면 잡힐 듯 지근한 거리에
점점이 떠 있는 그리운 여우족(族)
글썩이고 반짝이는 바다에
주둥이를 담그고 해당화 눈빛으로
섬과 섬을 넘나든다
고기잡이 배들이 돌아올 때면
갈매기보다 먼저 파도를 탄주하는
삼도귀범의 푸른 여우
물속 산맥을 내질러 바다의 내장을
성글게 끓여 먹고
머리만 우뚝한 태초의 시간을 내민다
어제와 오늘의 경계에
갇히지 않는 여우, 수평선을 지나
닿을 수 없는 시간의 이음매가
자갈마당에 밀려온다
그 밤 여우가 삼킨 별들이
다대포 앞바다를 환하게 밝혔다

운문 가작 : 고니와 새섬매자기

한 승 엽

누군가의 눈에는 보이고
누군가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것
초록의 꽃대가 낙동강 하굿둑에서 하늘거린다
수십 센티까지 자라고 자라
꽃들이 갈색으로 익어갈 무렵이면,
국경을 월담하듯 찬 공기 뚫으며
날갯죽지의 근육을 달랠 틈도 없는
고니가족들의 긴 울음소리 들려오고
고비마다 구름다리를 건너는 심정으로
긴 목과 납작한 부리를 앞세워
매순간 타고난 집중을 펼치며 날아오는데
금방이라도 잡힐 것처럼
산과 강줄기가 멈추지 않고 흐르더니
모래톱, 아늑한 모래톱이
수천만 개의 눈빛으로 반짝이며 일어서고
차가웠던 뺨이 환히 달아오를 때
저 한복판 꼬트머리에서
더 환하게 물들어 있는 것들이 보이자
견딜 수 없는 허기에 정신이 없다가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자세로
아니 무리지어도 우아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뿐히 내려앉고 있다
순간, 새섬매자기는 인연을 눈치 채고
팡팡 얼어붙는 혹한 속에서도
평화의 순례가 시작된 것을 알았을까,
무엇인가 춤추듯 흔들거리고 있었다.

*새섬매자기: 고니가 먹이로 즐겨 찾는 다년생 식물